



최의순(1934년 -), <명동대성당 중양문>, 1985-1987년 제작(2009년 설치), 청동(bronze), 110x250x9cm, 명동대성당, 서울

성화해설

명동대성당의 정문 부조에는 우리나라 신앙 선조들의 철저한 하느님 사랑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웃 사랑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왼쪽 부분의 상단부터 하단에는 최초로 미사봉헌을 하는 순교자 중국인 주문모 신부(1752-1801), 평북 의주의 국경 관문, 삿갓을 쓰고 복음 전파하는 성직자, 박해를 피해 떠나는 행렬, 고아를 돌보는 모습, 박해받던 신자들의 생활 수단이었던 옹기가 묘사되어 있다. 오른쪽 문에는 '주교요지'를 읽고 있는 명도 회 초대회장이었던 순교자정약중(1760-1801), 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 박해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 노약자를 돕는 신자와 약방관이 새겨져 있다.

입당송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들을 찬양하네.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시편 126(125),1-2ㄴ,2ㄷ-3,4-5,6(◎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

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환호송 1베드 4,14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 하리라.

그 이름도 찬란한 순교자들이시여!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그
□
년은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자행되었던 순교의 현
장인 이 땅에서 103위 시성식이 거행된 지 만 25년
이 되는 감격스러운 해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가톨릭
신자인 우리 모두는 벅찬 감격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그날
의 감동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25년 전 시성 되신 103위 성인들은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집요한 회유와 모진 박해의 순간들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치적 압박에 굴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믿는 바를 고백하
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
까지도 흔쾌히 내어놓는 위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
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
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8-39)
라고 진술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은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
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드높이
올려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
도처럼’ (필리 2,8-9 참조) 지금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행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절대적 가치
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 온 삶을 투신한 분들이 오늘 우리
가 기리는 순교 성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삶을 뒤따
르는 것이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본질적
인 삶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조들이 사셨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
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가 마
치 절대 가치인 양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

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싸워나가
야 할 적은 선조들이 겪었던 박해라는 물리적인 고통이 아
닙니다. 오히려 장밋빛으로 위장된 갖가지 물질적인 유혹
들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혹의 범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
에게 근원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원
적인 선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내면적인 투쟁은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의 순간
이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 내려야 할 선택의 순간은 어
떤 이유에서든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복음이 가
르치는 바가 그 점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위선
과 가식의 탈을 뒤집어쓴 채 자기 기만적인 신앙의 삶을 살
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선조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진정성이 담겨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고 선택의 순간 역시 지금
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자연 읽기



황종렬 레오 | 두물머리복음화연구원

하느님은 우리 교회에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사명과 통합하여 묵상하고, 자연을 성경에 비추어 만나는 새롭고도 오랜 기풍이 우리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네딕도 16세 교황님은 2010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평화와 공동선의 보호를 위해 창조 질서 수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실 것이라 합니다. 교황님은 생태계의 보존이 우리의 신앙 실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황님은 두 달 전에 발표하신 회칙 <진리안의 사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이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서 자연 만물을 얼마나 깊이 존중하시는 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연은 사랑과 진리의 계획을 드러내 줍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앞서 존재합니다. 자연은 하느님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배경으로서 주어졌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창조자에 대해서(로마 1, 20 참조), 그리고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연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합’ 되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에페 1, 9-10; 콜로 1, 19-20 참조). 그러므로 자연 역시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은 버려진 폐기물로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자께서 질서를 부여해 주신

한 선물로 인간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일구고 돌보는’(창세 2,15) 데 필요한 원리들을 자연 자체에서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48항).

교황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두 책, ‘성경과 자연’ 가운데 ‘자연’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서 갖는 무한한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교황님은 “자연은 우리에게 앞서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자연 없이 우리의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느님께서 자연을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의 바닥이 되어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심을 자연스럽게 일깨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공기와 물, 온갖 식물 등으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빵과 포도주로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성경과 함께 하느님의 또 하나의 텍스트 자연 역시 충실하게 읽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기풍이 우리 교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특히 오늘 순교자들의 대축일에, 우리 시대에 맞는 ‘녹색 증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벌써부터 꿈꾸어 온 ‘초록 교회’를 아름답게 실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푸른 하늘과 황금빛 들판 사이에서 자연이 들려주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만나서 깊은 치유와 해방, 기쁨과 충만을 온가족모든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꿈꾸면서요.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7

교회는 자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효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가톨릭교리서 2283항).

지난 5월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는 것이 교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옛 교회법(1917년 법전)에는 파문당한 자, 결투로 죽은 자, 자살자는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83년 개정된 새 교회법에서는 자살자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992년에 펴낸 새 가톨릭 교리서에도 교회는 자살을 단죄하지만 자살한 사람의 구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자살자가 대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보고 심판하시리라 믿고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빛과 소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누군가 불쑥 “당신은 행복합니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물론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를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삶을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렇지만 정작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지난 6월에 미국의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가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1937년에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던 2학년 남학생 268명의 인생을 72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이다. 놀랍게도 조사 대상의 3분의 1은 정신질환을 앓았고, “엘리트라는 겉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연구 결과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결론지었다.

다시 말해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진 교훈은 행복이란 소유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잘못되면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 연구는 “잘 사는 삶에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한 삶에 일정한 공식이 있을까?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E=mc^2$ 이라는 불멸의 방정식을 만들었다. 질량(m)에 광속(c)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E)가 된다는 것이다. 이 공식에 의해 질량과 에너지는 완전히 등가라는 것이 밝혀졌고, 원자탄 개발의 기초가 되었다. 비록 물리학자들이 무식하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 공식을 원용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을 만들어 본다. “사랑(love)에 관계(relation)의 제곱을 곱하면 행복(Happiness)이 된다 ($H=lr^2$)”는 ‘행복 공식’이다. 이 공식에 의하면 비록 소유하고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사랑과 관계가 충만하면 행복할 수 있다. 더구나, 이 공식의 원리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구해야 할 ‘하느님 공동체’ 구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신앙인에게 행복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과 후회 없는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승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느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만이 유지되고 승화된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쓸 때”(에페 4, 2-4)만이 가능하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모든 것을 이룩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게 된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 서로 상처를 주는 존재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다. 여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 용산 참사, 비정규직 대량 해고, 청년 실업 양산 등 수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아프게 짓누르고 있다. 작금의 물질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행복 공식’이 작은 위안과 큰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

김형준 다니엘 |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명지대 정치학 교수

오늘(9월20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당고개 순교 성지개발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9월7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신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총무)으로 청주교구 신성근 야고보 신부(1986년 사제 수품)를 임명.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 신성근 야고보 신부를 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총무로 임명.
3.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가 제출한 「교회와 여성」 소모임 교재의 출판을 승인.
4. 주교회의 문화위원회(위원장 이기현 주교)가 제출한 「한국 천주교회의 문화유산 지침」(안)을 승인.
5.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유홍식 주교)가 제출한 한국 성지 소개 책자 「한국의 성지 순교자의 발자취」(가제)의 출판을 승인.
6. 『칭년 교리서』 제4권 「하느님 만나는 은총의 길」(시안) 심의, 「독서집」(안) 심의,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주교회의 2009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다룰 안건 목록을 확정.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장관 사칭 모금활동 경계의 건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님께서는 일부 교육기관이나 개인이 팩스나 인터넷으로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장관 제논 그로홀레프스키 추기경님을 사칭하여 모금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알려졌으며, 교황청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각별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셨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9월22일 박고빈 시메온 신부(67세) 2002년, 용인
- 9월23일 박동현 마르코 신부(55세) 1948년, 용산
- 9월25일 박고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8세) 2004년, 용인

학교법인 소속 사제 인사발령

학교법인 소속 사제들이 8월25일자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성명	전임지	새임지
김영국 신부	안식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 국장
이동의 신부	성의교정 생명대학원장	검)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
이재철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구현실장	검)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이기현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경영 관리실장, 검)서울성모병원 행정부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경영지도실장
이경상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 국장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국 부국장
최정진 신부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원장	성모병원 원목실장
김호성 신부	성모병원 원목실장	성바로병원 행정부원장
윤정한 신부	성가병원 원목실장	서울성모병원 관리부장
정동훈 신부	서울성모병원 원목	성가병원 원목실장
이성우 신부	성바로병원 행정부원장	서울성모병원 행정부원장
이 남 신부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사무처장

함께해요! 감사와 사랑 운동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주교회의 및 교구청 알림

주교회의

2009년도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심포지엄

- 주제: 한국 천주교회의 새복음화 현실과 전망
- 때, 곳: 9월25일(금) 14시~17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코스트홀 / 문의: 460-7647(회비 없음)

발제 1	한국 종교 현실의 변화와 사목 과제 발표: 박영대 소장(우리신학연구소)
발제 2	한국 천주교회 복음화를 증가 요인과 사목대안 발표: 최현주 연구원(미래사목연구원)

교구청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9월25일(금) 오전 10시30분
- 곳: 명동대성당 내 소성당 / 문의: 727-2414, 5

원목봉사자교육 제II과정

- 내용: 환자돌봄을 위한 심화교육(회비: 9만원)
- 때, 곳: 9월12일~11월2일 매주(월) 10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10월6일(화)까지 접수
- 문의: 727-2073, 2050 일반병원사목부

경찰서 유치장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건강받은 60세 이하 교우) / www.catholicpolice.or.kr
- 문의: 723-9471 경찰사목위원회

평화화랑 전시안내: 최찬희 개인전

- 최찬희(테레사, 춘천교구 거두리성당) 개인전
- 때, 곳: 9월23일(수)~29일(화), 제1전시실
- 전시 및 대관 문의: 727-2336~7 평화화랑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문의: 727-2065~6)

- 회비: 2만5천원(본당의 신청서로 접수)
- | | |
|-------------|---|
| 함께하는 여정 2단계 | 대상: 함께하는 여정 1단계 수료자
때: 10월8일~2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9월30일까지 접수) |
| 전례학교 | 대상: 본당 전례분과위원, 일반교우
때: 10월13일~11월10일 매주(화)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10월6일까지 접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www.catholic.or.kr) 홈페이지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종 수녀회	9. 27. 14시-16시	돈암동 분원	010-3065-8221
사랑의 씨튼 수녀회	9. 25. 19시30분	씨튼 피정의 집	011-9193-3005
살레시오 수도회	9. 26-27. (1박2일)	대림동 공동체(서울)	011-894-1332
선한 목자 예수 수녀회	9. 27. 14시-17시	성북구 길음동 본원	010-8828-2754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서울 국제 선교회	9. 26. 14시	사당5동성당	749-4596
예수수도회	9. 27. 14시	홍지동 수녀원	011-9910-1198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9. 27. 14시	다락 공부방(서울)	011-9731-0283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	9. 27. 14시	가양동 분원	010-3130-3370
착한목자활동·관상 수녀회	9. 27. 14시-17시	자양동 수녀원	010-2871-8805

알림

모임

수도자와 함께하는 순례의 길

· 때: 11월4일(수)-16일(월) /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 문의: 010-7131-3097 권루치아 수녀(주최: 아찌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영성연구소)

삼성산 성지 성모승 2천번 기도회

· 지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874-6346
· 때: 9월21일(월), 28일(월) 오전 9시30분-오후 5시
· 곳: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무료 월피정

· 주제: 응답하는 삶의 일상적 경험 / 717-3869
· 때, 곳: 9월25일(금) 10시-16시, 예수회 센터 내 대성당(미사있음·개인 물컵지참·중식제공)

하느님을 갈망하는 젊은이를 위한 피아모임

· 때: 9월27일(일) / cafe.daum.net/fiatmeeting
· 문의: 010-5247-8913, 010-3825-4999 원죄없으신 마리아 수녀회, 글라렛 선교 수도회

찬양 웃음 치유(작은예수회)

· 내용: 찬양과웃음, 치료 레크레이션 / 018-330-3283
· 강사: 메히틸다 수녀, 에프렘 수사, 김혜리(웃음 치료사) / 미사: 박성구·김재영 신부
· 때, 곳: 매주(수) 13시-17시, 작은예수회관(전철 5·7호선근자역6번출구,농협 지하) / 주축: 예수사랑음악원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 고해성사, 상담, 강의, 치유기도, 안수, 미사(중식제공)
· 때, 곳: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9월23일 웃음치유/김현남수녀 9월30일 은혜로움치유기도회/찬양팀

이름다운 축복기도회(문의: 867-7900, 011-9074-6527)

· 때, 곳: 9월26일 매주(토) 17시30분-22시, 신림동 성령쇄신회관 대성전 / 주최: 성령쇄신봉사회
1주 전례주기에 따른 기도회 2주 찬양의밤
3주 회복의 시간 4주 요셉기도회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치유세미나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고해성사, 성체현시 / 대상: 모든 교우들(회비없음)
· 때, 곳: 9월25일-10월30일 매주(금) 22시-4시30분, 교구 철야기도회(혜화동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전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 867-7900

9월25일 치유의 정의 10월2일 내적치유 10월9일 영적치유
10월16일 의적치유 10월23일 치유기도 10월30일 치유와관계삼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문의: 773-1455)

Table with 2 columns: 제주 피정, 사무일체회 피정. Content includes '메일미사, 새미 은총의 동산 기도회' and '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직원 모집

잠원동성당 사무장 모집(문의: 595-2416, 7)
· 대상: 세례 받은지 5년 이상, 회계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분 / 9월30일(수)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세례 증명서 및 주임신부 추천서 각 1통(서류심사 후 면접 일시 개별통지) / 서류는 반환 안됨

요셉의원 직원 모집(문의: 2634-1760)
· 노숙자, 행려자 등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하는 의원임, 봉사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함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된 교우 경리 업무 가능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주임신부 추천서(제출서류 반환 안됨)

시흥5동성당 은혜의 밤

· 강사: 차동엽 신부 / 문의: 011-9917-2898
· 때, 곳: 9월23일(수) 오후 7시-10시30분

가톨릭 여성연합회 월례회

· 주제: 생명과 사회복지 / 특강: 양옥경 박사
· 미사: 민병덕 신부(사목국장) / 778-7543
· 때, 곳: 9월22일(화) 10시, 명동성당 문화관 소성당

교육

구림서초여성회관 전문상담실(문의: 522-0291, 2 / 223)

· 개인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인지치료,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특수체육 / 검사: 종합심리검사, 영유아 발달검사, 언어발달검사
· 대상: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 상담대상 문의: 522-0294(www.women.co.kr) 상담계시관
'내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예방교육 영상강좌 제12기
· 대상: 일반인, 학부모, 교리교사, 수도자, 교육자로서의 자질향상에 관심 있는 분 / 832-2654, 010-3883-7004
· 때, 곳: 9월25일-12월11일 매주(금) 9시30분-12시 30분(오전반), 19시-21시50분(오후반) / 총 12주간
· 곳: 유아청 청소년 영성의 집(주최) 살레시오 수녀원 내(전철 7호선 신봉역 4번 출구) / 전화접수 가능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587-9207(http://jinain.com)

상처입은 내면치유와 회복: 10월8일-11월26일 매주(목) 10시-12시50분
전문심리치료 음악치료 개인(불안, 우울, 대인관계 부적응), 부부·가족간의 갈등
청소년·성인전문심리검사(성격, 정서, 인지, 자능,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등)

매종 프로그램(발달 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문의: 011-219-2059 /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Table with 2 columns: 전문적 상담 및 심리치료,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긴장하는 걱정, 근심 많은 학생, 성격이 조금하고 참을성이 부족하여 쉽게 포기하고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인, 목표의식이 부족하고 장애에 무엇을 할 지 몰라 정체감의 위기를 맞는 전연령층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10)

Table with 2 columns: 참가자 찾기 훈련,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자아성장집단, 감수성 훈련. Content includes dates and times for various training sessions.

모집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문의: 043-260-5076, 78)

· 원서교부 및 접수: 9월28일(월)-10월7일(수)
· 소재: (우: 363-913)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 교육지원실 / 우편접수 시 당일 소인 유효함
· 입학설명회: 9월26일(토) / http://yangeob.hs.kr

인헌동성당 아간관리인 모집(문의: 884-1584)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된 남교우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근무시간: 오후 5시-밤 11시 / 채용시까지 접수
도곡동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된 남성으로 고졸 이상,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3460-2481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 안됨

순교성지 새미터성당 관리직원 모집(문의: 716-1791)

·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 된 신체 건강한 남성, 운전면허(1종 보통) 필수, 관리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 자격증 사본(9월27일까지 접수)

논현성당 베네디레 오케스트라 단원모집(편곡자 포함)

· 대상: 토요특전반주에 관심 있으신 분 / 011-9111-9929
· 홈페이지: 오디션 참조: club.cyworld.com/musiclife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대상: 신우회 회원 및 관심 있는 교우 / 753-0815
· 때, 곳: 9월23일(수) 10시30분, 명동성당 내 소성당

신당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월례미사

· 때, 곳: 9월21일(월) 오후 2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주최)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9월24일(목) 오후 3시, 명동성당 별관

서울경기 성모신심미사와 다락방기도

· 미사: 이홍영 신부 / 727-2489 다락방 봉사회
· 때, 곳: 9월28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곱비신부 초청 전국 순회 피정 관계로 10월 신심미사와 다락방기도는 쉽니다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후원회 미사와 영성강좌

· 주제: 성모님 안에서의 마음 상처 치유
· 내용: 미사, 영성강좌(구원모 신부) / 793-2070
· 때: 매일 셋째주(월) 10시30분-12시50분
·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원기도와 미사

· 내용: 구원기도 및 강의, 미사 전후에 고해성사
· 때, 곳: 9월21일(월) 오후 2시, 유수1동성당
· 구속주회 후원: 매주(토) 오전 11시
· 문의: 598-1312, 010-4189-5755 구속주회 신부

안내

부모자녀, 대인관계, 갈등해결, 행동변화 마음을 열게 하는 '칭찬대화법'

· 때: 9월23일(수) 10시, 14시(각 강의 3시간, 주 1회·6번) / 3675-1338 가톨릭 여성의전화

실로암 집단상담

· 신앙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영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박현민 신부의 회복과 치유의 집단상담 실시함 / 문의: 544-1617 성심인간계발원
· 때, 곳: 매주(목) 10시-12시(8주) / 인원: 12-15명(선착순)

잠실가정폭력상담소 프로그램(문의: 2202-7806)

·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상담, 부부갈등, 자녀문제, 대인관계, 기타심리문제상담, 여성상담 입소연계(월급) 9시-18시

Table with 2 columns: 부부캠프, 부부가 함께 건강한 갈등 해결 기술을 습득하는 캠프 11월7일(토)-8일(일) 1박 2일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성가복지병원 직원모집

· 대상: 가톨릭 교우인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내과 전문의 / 문의: 010-4940-6113

도서출판 성서와함께 직원모집(제품관리 및 배송)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 9월26일(토)까지 접수
· 문의: 822-0125(이메일: order@liwibi.com)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청소년구산하기원시립보라매 청소년수련관직원 모집

· 분야: 홍보, 전산 담당 1명 / 문의: 834-6411
· 대상: 홍보, 미디어,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자
· 기간: 9월25일(금)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
· 홈페이지: http://www.boramyc.or.kr

서울대교구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09년 순교자 성월 추천 도서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되신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을 만나 보세요!



성 유스토

윌스트 지음 | 강진수 옮김 | 224면 | 10,000원

1866년 병인년 3월 7일, 한강변 새남터에서 참수된 프랑스인 사제 백 유스토 신부의 일대기로, 우리의 신심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사랑의 순교자 에디트 슈타인

테레시오 보스코 지음 | 이건 옮김 | 76면 | 4,500원

이 책은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가르멜회 수녀가 되어 순교로 삶을 마감한 에디트 슈타인의 삶을 담고 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교 신자들 사이의 화해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스실로 걸어 들어간 그녀의 숭고하고 감동적인 삶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신간 도서

한국 성지순례 안내서이며 신앙 선조들의 순교사



순교의 맥을 찾아서

오영환 · 박정자 지음 | 수원교회사연구소 감수 | 672면 | 35,000원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신앙 선조들의 삶과 죽음이 펼쳐졌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쓴 성지순례 안내서다. 총 264곳의 성지와 사적지를 교구별로 나누어 순례지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래와 박해 역사 등 교회사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성지순례를 통해 선조들의 뜨거운 신앙의 숨결을 체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매일의 전례에 따른 묵상과 기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당신의 아침을 여는 말씀지기

96면(한글판) | 80면(영문판) | 각 권 900원
1년 정기구독료는 각 권 17,000원, 한글판·영문판 동시 구독은 30,000원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이다. 매일 전례에 따른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한 '30일 묵상', 사제들의 자아 성찰과 단상을 솔직 담백하게 담아 놓은 '아침 프락', 그 달의 주제에 맞는 가르침이나 인물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영성 에세이' 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어 하루하루 하느님을 향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70-8233-8221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제18회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 문의: 774-1784 명동대성당(전석 초대)
- 연주: 최희정, 김지혜, 김경희, 조신혜



본당에서 반주를 하며 명동성당 오르간 교실에 수강중인 학생들이 연주하는 '제18회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가 9월21일(월) 오후 8시, 명동대성당에서 있다. 명동성당 오르간교실(윤헬레나 수녀 지도)은 1998년 개설되어 많은 오르가니스트를 양성하고 있다. 작곡가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전반부는 멘델스존 작곡의 작품으로 연주하며, 성가 '주님의 기도'를 주제로 한 소나타 6번, 소나타 1번, 전주곡과 푸가 등을 연주한다.

제8회 오프대학로 페스티벌

- 입장권: 일반 2만 원, 학생 1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6381-4500
- 공연시간: 평일 20시 / 토 15시·19시 / 일 15시



쉽고 선정적이며 가벼운 재미만 추구하는 요즘 연극의 본질은 찾고자 마련한 제8회 오프대학로 페스티벌 '페미니즘 연극제'가 10월7일(수)~11월29일(일),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있다. '비밀을 말해줄까', '상자 속 여자', '메테아', '봉구씨와 옥순씨의 불편한 권력관계', '미스 줄리', '그녀, 고도를 기다리며'의 6작품을 선보인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